

KCUE

HIGHER EDUCATION ISSUE

2024년
제2호

발행일 | 2024년 6월 19일 발행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발행인 | 박상규 작성자 | 김승정 선임연구원(sjykim20@kcue.or.kr)

대학의 산학협력과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탐색 -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를 중심으로

I. 필요성 및 목적

-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이 처한 환경의 변화는 대학에게 교육, 연구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Etzkowitz, 2004)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음. 대학의 혁신을 유도하는 RISE 체제의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생태계 구축' 방향은 대학이 연구 개발과 교육을 통해 지역 내 창업과 고용 창출을 가져오는 기업가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 발전의 중심축에 설 것을 요구함.
- 기업가적 대학에 대한 논의는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국내에서도 그간 대학 내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실험실 창업, 학교기업,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등의 제도를 통해 구체화되어 왔음.
- 본고에서는 대학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활용과 사업화에 있어 비즈니스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보다 큰 규모의 수익 창출을 위하여 도입되었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산학협력과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함.
-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단독 또는 연합으로 기술을 현물 출자(자본금의 30% 초과)하여 설립되며, 자회사 설립 및 편입, 경영 관리 등의 창업과 투자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전문 조직임. 2008년에 최초로 한양대학교가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이후로 2023년 기준 총 82개의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단독, 연합 포함)가 설립되었으며, 1,345개의 자회사가 운영 중에 있음.
-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기술 사업화와 자회사의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6에 의하여 산학연협력계약 또는 대학의 연구개발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학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왔음. 일부 대학은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높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으나 투자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나타나 그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됨. 이에 정부는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안)'을 통해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를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확장하고 일부 규제를 풀어 운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계획을 발표함.
- 따라서 본고에서는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현황을 살펴보고, 산학협력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장기적으로 대학의 연구 성과가 사회 경제적으로 파급되어 대학의 재정 보완 뿐 아니라 지역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II. 분석자료 및 방법

분석자료 및 방법

-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현황은 대학정보공시자료 2014년~2023년 기술지주회사 운영현황(2024.5.1.인출) 자료를 활용함.
-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의견조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직원 및 지주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시행한 조사로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함. 그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음.

<표 1> 분석 자료

구분	지표명	자료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현황	• 연도별 기술지주회사 설립, 산학협력단 출자액, 기술지주회사 자본금, 매출액, 자회사 수, 자회사 매출액 추이 ※ 기술지주회사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 제 36조의 2」의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1조의 2」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있음. 본고에서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수가 극히 적고('23년 기준 3개), 운영방식이 다름에 따라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만을 분석 대상으로 함. ※ 연합형 기술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자본금, 고용인력 등 중복되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분석	대학정보 공시자료 (2024.5.1.인출)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의견조사 분석	기술지주회사의 운영과 제도에 대한 인식	• 운영의 적절성 (모든 문항 5점 리커트 척도) • 운영의 어려움 (모든 문항 5점 리커트 척도) • 설립 기준과 운영 방식 (모든 문항 5점 리커트 척도)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의견조사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	• 기술지주회사의 대학 교육·연구·재정에 대한 기여 (모든 문항 5점 리커트 척도) • 발전가능성과 지역산업연계 정도 (모든 문항 5점 리커트 척도) • 기술지주회사 성장을 위한 의견 (자유 응답)	
	응답자 특성	• 소속 기술지주회사 특성(직원 수, 자회사 수) (모든 문항 선택형) • 소속 대학 특성(학생 수, 지역, 설립유형) (모든 문항 선택형)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의견조사 응답자 특성

-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90명으로 대학, 지역, 규모 등에 관한 응답자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음. 응답율이 높지 않고, 체계적인 표집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연구로 보완되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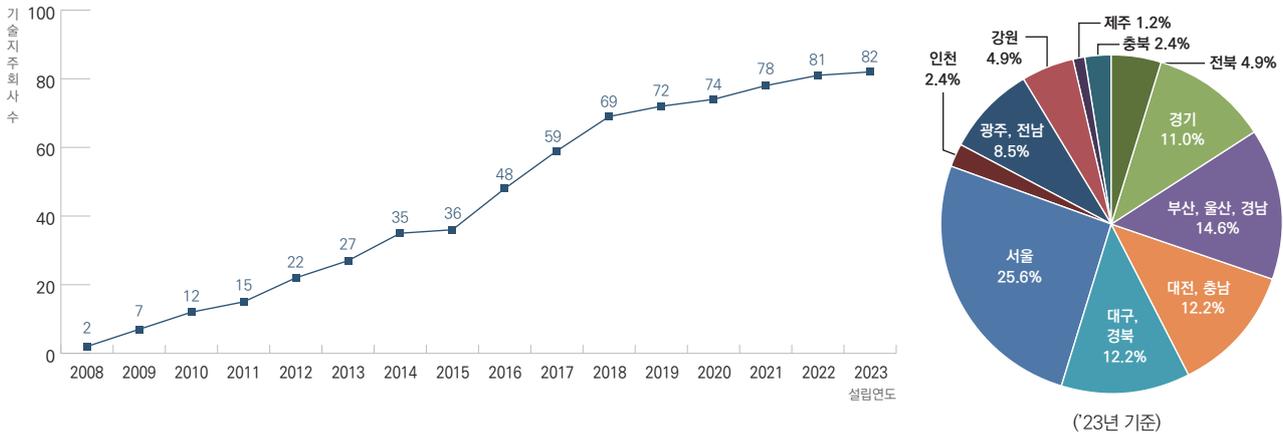
<표 2>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수 (%)	구분	응답자 수 (%)
소속 대학 설립유형	국공립 35 (38.9)	지주회사 규모	직원 8명 이상 21 (23.3)
	사립 52 (57.8)		직원 4명~7명 20 (22.2)
	무응답 3 (3.3)		직원 1명~3명 48 (53.3)
소속 대학 규모	대규모 53 (58.9)	자회사 규모	무응답 1 (1.1)
	중소규모 35 (38.9)		자회사 10개 미만 27 (30.0)
	무응답 2 (2.2)		자회사 10개 이상 43 (47.8)
소재지	비수도권 55 (61.1)	자회사 30개 미만 18 (20.0)	자회사 30개 이상 18 (20.0)
	수도권 34 (37.8)		무응답 2 (2.2)
	무응답 1 (1.1)		

Ⅲ.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현황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연도별 설립 현황

-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 가능하며, '23년 기준 단독 설립 기술지주회사는 74개, 공동 설립 기술지주회사는 지역 연합 7개 (강원지역대학연합, 광주지역대학연합, 대경지역대학연합, 부산지역대학연합, 전남지역대학연합, 전북지역대학연합, 포항지역대학연합)와 대학 연합 1개 (엔포유대학연합)로 총 82개가 운영되고 있음.
- 2008년에 한양대학교와 서울대학교가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그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
- 지역별로는 '23년 기준 서울 소재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수가 21개(25.6%)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이 12개(14.6%), 대구·경북이 10개(12.2%), 대전·충남이 10개(12.2%)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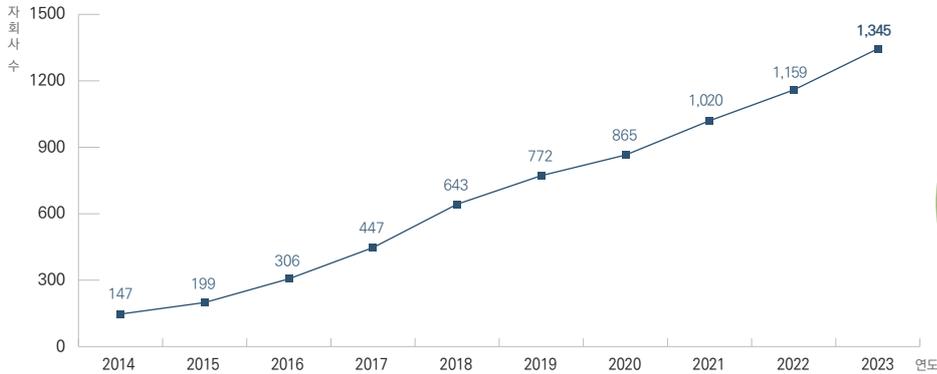


출처 : 대학정보공시(2024.5.1.인출)

[그림 1] 연도별 산학협력 지주회사 설립 현황 및 지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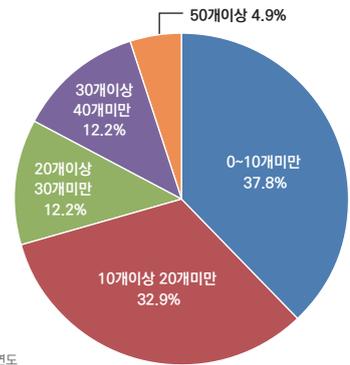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현황

-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기업활동 지배로 수익을 창출하며, 자회사의 설립과 경영 관리, 자원 조달, 홍보·마케팅, 기업 공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지난 10년간 자회사 숫자는 [그림 2]와 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23년 기준 82개의 기술지주회사가 관리하는 자회사는 총 1,345개임. 기술지주회사별 자회사 수는 최소 0개에서 최대 73개로 기술지주회사 간 자회사 보유의 격차가 나타남. 총 50개 이상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4개(단독형 1개, 연합형 3개)이며, 10개 미만의 자회사를 가진 회사는 31개로 전체의 37.8%에 해당함.



[그림 2] 연도별 자회사 설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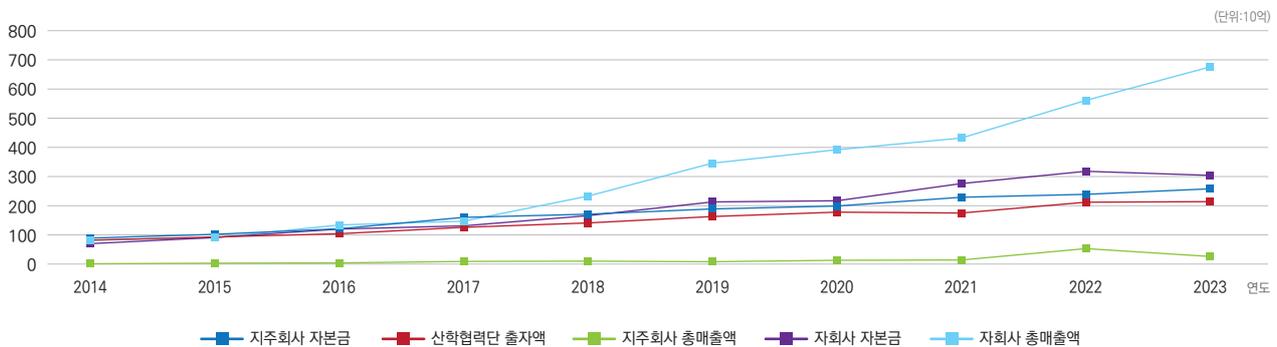
출처 : 대학정보공시(2024.5.1.인출)



[그림 3] 지주회사의 보유 자회사 수 (2023년 기준)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자본금, 출자액, 매출액 현황

- 지난 10년간 기술지주회사의 자본금, 산학협력단 출자액, 기술지주회사 매출액, 자회사 자본금, 자회사 매출액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2018년 이후 자회사 매출액의 증가 속도가 이전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 '23년 기준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자본금은 총 2,580억, 산학협력단 출자액은 총 2,136억, 지주회사 매출액은 총 261억, 자회사 자본금은 총 3,039억, 자회사 매출액은 총 6,756억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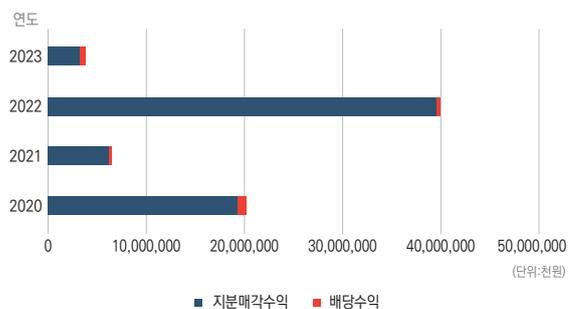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자본금, 출자액, 매출액, 자회사 자본금, 매출액 추이

출처 : 대학정보공시(2024.5.1.인출)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투자 회수 현황

- 기술지주회사의 투자 회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수익이 '22년 약 396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배당 수익에 비하여 지분매각 수익의 비중이 높음. 지분매각 수익은 자회사 매각 시기에 따라 연도별, 대학별 차이가 발생함.
- 단일 대학을 기준으로 수익이 가장 높았던 대학은 '20년 약 58억원, '21년 약 19억원, '22년 약 286억원, '23년 약 9억 7천만원으로 대학별 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수익현황은 2020년부터 공시하였음
출처 : 대학정보공시(2024.5.1.인출)

[그림 5] 연도별 기술지주회사 총 수익현황

IV.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의견조사 분석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 전반적으로 대학 유망기술 사업화, 자회사 경영관리, 자회사 컨설팅과 카운슬링, 전문인력 확보 영역에서는 보통 이상 적절히 운영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자회사에 대한 투자와 수익 발생 측면에서는 적절히 운영되지 않는다고 인식함.
-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전반에 걸쳐 비수도권 대학과 규모가 큰 기술지주회사에서 운영 적절성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남.

〈표 3〉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운영의 적절성

구분		대학 유망 기술 사업화	자회사 경영관리	자회사 컨설팅 카운슬링	기술 사업화 전문 인력 확보	자회사 투자	수익 발생
지역	수도권	3.47	2.91	2.94	2.88	2.58	2.15
	비수도권	3.98	3.73	3.76	3.59	2.95	2.13
지주회사 규모 (직원 수)	8명 이상	4.29	3.95	3.81	4.29	3.24	2.19
	4~7명	3.80	3.45	3.55	3.40	3.15	2.10
	4명 미만	3.56	3.17	3.25	2.85	2.47	2.13
자회사 규모 (자회사 수)	30개 이상	4.22	3.78	3.83	3.94	3.28	2.56
	10개~29개	3.91	3.44	3.44	3.49	2.81	2.09
	10개 미만	3.33	3.11	3.19	2.67	2.50	1.96
전체		3.77	3.40	3.43	3.30	2.80	2.12

※ 모든 문항 5점 리커트 척도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기술 발굴, 발명자 계약 및 보상, 자회사 관리, 산단 역할 분담 및 기능 조정, 재정 확보, 전문인력 확보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보통 이상으로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음.
- 재정 확보 및 전문인력의 확보 측면에서는 지역이나 규모와 관계 없이 모두 어렵다고 인식함.
- 운영상 어려움은 회사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구체적으로 기술지주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유망 기술 발굴을 더 어렵다고 느끼며, 규모가 큰 회사는 발명자 계약 보상과 자회사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운영상 어려움

구분		유망기술 발굴	발명자 계약·보상	사업화 과정	자회사 관리	산단 내 기능조정	재정확보	전문인력 확보
지역	수도권	3.76	3.35	3.41	3.59	3.74	4.12	4.32
	비수도권	3.67	3.65	3.33	3.76	3.65	4.37	4.13
지주회사 규모 (직원 수)	8명 이상	3.62	3.86	3.29	3.71	3.52	4.24	4.05
	4~7명	3.60	3.60	3.40	3.95	3.85	4.25	4.05
	4명 미만	3.79	3.38	3.38	3.58	3.69	4.30	4.33
자회사 규모 (자회사 수)	30개 이상	3.50	3.44	2.94	3.89	3.50	4.11	4.28
	10개~29개	3.60	3.49	3.35	3.52	3.74	4.26	4.07
	10개 미만	4.00	3.67	3.67	3.85	3.74	4.38	4.33
전체		3.72	3.56	3.37	3.70	3.70	4.28	4.21

※ 모든 문항 5점 리커트 척도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인식

-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10% 지분을 보유 조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가 자본금의 30%를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 출자해야 한다는 조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운영 방식의 효과성은 지주회사 규모에 따라 다른 의견을 보여줌. 전주기 주도적 지원 방식은 비수도권 대학과 규모가 큰 기술지주회사에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외부 전문가그룹을 활용한 기술지주회사 운영 방식은 수도권 대학, 소규모 기술지주회사에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인식

구분		의무 조항 제도		운영 방식	
		지분을 10% 유지 불필요	현물출자 30% 유지 불필요	전 주기 주도 지원이 효과적	외부 전문가 그룹 활용이 효과적
지역	수도권	4.26	4.38	3.59	3.58
	비수도권	4.02	4.22	3.91	3.18
지주회사 규모 (직원 수)	8명 이상	4.43	4.62	4.38	2.43
	4~7명	3.90	4.00	3.75	3.55
	4명 미만	4.06	4.25	3.53	3.64
자회사 규모 (자회사 수)	30개 이상	4.22	4.33	4.17	2.83
	10개~29개	4.09	4.30	3.81	3.33
	10개 미만	4.04	4.19	3.50	3.73
전체		4.11	4.29	3.79	3.34

※ 모든 문항 5점 리커트 척도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

- 대학의 교육, 연구, 지역발전, 대학재정확보에 대한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기여 가능성에 대하여 〈표 6〉과 같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줌. 비수도권, 대규모 지주회사에서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
- 반면 발전 가능성과 지역 연계 측면에서는 보통 정도로 평가하고 있으며, 역시 비수도권, 대규모 기술지주회사에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줌.

〈표 6〉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

		연구개발 촉진에 기여	창업, 기술 교육에 기여	지역발전에 기여	대학 재정 확보에 기여	발전 가능성	자회사의 지역 산업과 연계성
지역	수도권	3.74	4.06	3.65	3.88	3.32	2.65
	비수도권	4.15	4.22	4.38	4.26	3.62	3.80
지주회사 규모 (직원 수)	8명 이상	4.38	4.43	4.62	4.43	4.24	3.86
	4~7명	3.80	4.15	3.95	4.05	3.55	3.70
	4명 미만	3.90	4.04	3.94	4.00	3.17	2.98
자회사 규모 (자회사 수)	30개 이상	4.00	4.28	4.33	4.18	4.06	3.89
	10개~29개	4.07	4.19	4.12	4.19	3.58	3.36
	10개 미만	3.85	4.04	3.89	3.96	3.04	2.96
전체		3.99	4.17	4.11	4.12	3.49	3.34

※ 모든 문항 5점 리커트 척도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발전을 위한 자유 의견

-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발전을 위한 자유 의견을 살펴보면, ① 현 구조로는 민간 분야와 경쟁하기 어려우므로 제도적 보완과 경영 방식 쇄신이 필요, ② 수익 창출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다양한 수익원 창출을 위한 자율성 필요, ③ 정부 또는 산단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 ④ 전문 인력 확보와 행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줌. 일부 의견을 발췌하면 다음 [그림 6]과 같음.

<p>지주회사 발전이 장기적으로 대학과 산단에 기여할 것을 대학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으나, 현 시점, 투자 및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전문 경영인(대학 보직자가 지주회사 임원 겸직) 및 전문 인력 필수 보유와 대학의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됩니다. 또한 TLO와 협업, 사업화 참여가 필요합니다.</p> <p>충남 대규모 사립대학, 소규모 기술지주회사</p>	<p>현재 대부분의 지주회사가 기술사업화 관련 정부 R&D에 의존하고 있기에 사업이 없으면, 당장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정부 사업 이외에 다양한 수익화를 산학연기술지주회사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경남 대규모 국공립 대학, 소규모 지주회사</p>	<p>기술지주회사를 대학의 일부 기관이 아닌 투자회사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대학의 기술 사업화, 창업 활성화를 통해 쇠퇴하는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기술지주회사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기술지주회사를 민간의 창업투자회사, 민간의 기술사업화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p> <p>경북 소규모 사립대학, 대규모기술지주회사</p>	<p>지속적으로 전출을 통한 자본 확보가 필요하지만 단기간 수익 피드백이 어렵다 보니 학교의 도움을 요청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적인 영역의 업무로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낮은 급여 등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부분 산학협력단 겸직 발령으로 업무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p> <p>서울 대규모 사립대학, 소규모 지주회사</p>
---	---	--	---

[그림 6] 자유 의견 발췌

V. 결론 및 제언

지역과 규모에 따른 전략적 접근의 필요

- 위 연구 결과는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이 지역과 규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기관마다 필요한 자원과 전략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함. 단독형과 연합형,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형 회사와 중소형 회사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이 요구됨.
- 산학협력단과 지주회사 규모, 대학의 주력 분야 및 연구 수준, 소재 지역 등에 따라 R&BD(Research&Business Development), C&D(Connect&Development), A&D(Acquisition&Development), NR&DO(No Research&Development Only)(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2023)등의 기술사업화 모델들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단독 중소형 기술지주회사가 유망 기술 발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대학 내부의 지적재산과 외부의 지적재산을 연결시키는 C&D 방식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 또한 자회사 컨설팅 및 카운슬링, 투자 관리에 있어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연합 공동형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가져오고 다양한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대규모 연구중심대학의 기술지주회사는 TLO 부서와의 통합 또는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수요 기반 R&BD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대학이 주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기술을 사업화하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혁신 기반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의 확산

- 기업가적 대학의 발전에 있어 외적으로는 조직과 제도의 혁신, 대학-산업-정부의 네트워크 연결과 상호작용이, 내적으로는 구성원의 기업가적 정신과 문화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Etzkowitz, 2004; Guerrero&Urbano, 2010).
- 연구와 사업화 및 경영은 서로 다른 동기와 목표를 가지는 별개의 영역임. 따라서 대학의 연구 성과가 사업화 되는 과정은 다양한 경로가 존재함. 연구자들의 창업 뿐만 아니라 강연, 이동, 컨설팅 등의 활동을 통해 기술사업화로 연결이 가능함. 연구와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검증, 자본 유치 등이 다양한 경로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기업가 정신이 파급된다면, 별개의 영역 사이에 연결이 자동적으로 파생될 것임.
- 따라서 대학의 리더와 교수, 학생 등 조직 구성원이 기업가 정신과 가치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혁신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이 실현될 수 있는 개방적 조직과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기술사업화 단계에 적합한 전문 인력의 확보

- 기술사업화는 획득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응용연구가 이루어지는 초기단계, 제품을 기획, 설계,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도화를 통한 시장 진입 준비 단계, 사업 고도화와 양산을 통한 성장 단계로 구분될 수 있음. 각 단계는 기술 및 산업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주요 기능 및 목표에 부합하는 적정 역량이 다를 수 있어, 각 단계별 전문성과 적극성이 중요한 요소가 됨(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2023).
-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는 직원이 3명 미만의 작은 회사가 많은 편으로, 직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과 검직 발령 등에 의하여 업무 수행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견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음.
- 산학협력과 기술사업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 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더불어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제도 등 우수한 인적 자원에 대한 보상 제도가 필요함. 따라서 산학협력단 내에서 중복되는 기능과 인력 배치를 조정하고 과학 기술 사업화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확보하거나 외부 전문가 협업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임.

대학-산업-정부 간의 유기적 협력 구조 구축

-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 연구 개발의 사회적 활용은 대학 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가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대학의 혁신 연구 성과와 산업 사이를 연결하고, 자회사의 설립과 양육을 통해 지역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역할은 명확함. 따라서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연구자와 산업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술 사업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기회를 확대하고 개방적 관점에서 기술과 경영이 결합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 정부는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성장을 촉진하고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 지분율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유·무형의 재원을 투입하여 대학과 산업, 정부의 상호작용을 촉진해야 할 것임.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술 사업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대학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및 유기적 협력을 통해 선순환적 개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함.

참고문헌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2023). 2023년 국내외 R&D 기술사업화 통계브리프.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3). 대학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 대학 및 대학원.

Etzkowitz, H. (2004). The evolution of the entrepreneurial university.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and globalisation*, 1(1), 64-77.

Guerrero, M., & Urbano, D. (2010). The development of an entrepreneurial university. *The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37, 43-74.